최근 중국 위안화 강세의 시사점

이소양 연구원

중국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평가절하 등으로 7월 말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음.

- 미국 달러 지수는 7월 84에서 최근 5% 가까이 하락한 8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.
- 또한 미국,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통화정책 및 중국의 양호한 무역 수지에 따른 핫머니 유입도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 원인으로 분석됨.
  - 9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(FED)는 양적완화(QE3), 유럽 중앙은행은 무제한국채매입(OMT)을 각각 발표하였으며, 10월 일본 중앙은행은 자산매입기금을 80조 엔에서 91조 엔으로 증액함.
  -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9.9%, 무역수지흑자는 27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, 이로 인해 중국경제가 4/4분기에 회복세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.
  - 최근 씨티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중국, 홍콩 및 대만 등 중화권 지역에 유입되는 자금은 전세계 핫머니의 80%를 치지함.
-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환율은 11월 7일에 6.2436을 기록, 중국 위안화 가치는 7월 말에 비해 약 2.5% 상승함.

경제전문가들은 위안화 강세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함.

- HSBC가 700개의 중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2015년에는 중국 무역규모의 3분의 1 정도인 약 2조 달러의 무역거래가 위안화로 결제될 것으로 전망
- 또한, 11월 5일 중국인민은행 국제사(國際司) 허젠슝(何建雄) 사장은 멕시코 G20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이 외부요인이 아닌 시장 공급 및 수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표명함.
- 한편, 흥업은행(興業銀行) 수석이코노미스트 루정웨이(鲁政委)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현재 1%에서 올해 말 2.5%, 2013년 5%로 확대, 향후 위안화 환율을 자유화할 것이라고 전망함.

(신랑망, 11/07, 하쉬망, 11/05, 11/07 등)